



“질병대란 없었지만 경계 늦춰선 안돼”

✦ 점검 / 배합사료용 항생제 사용 전면금지 한달

농가들 발빠른 질병예방 노력... 눈에 띄는 변화 없어
일각선 항생제 오남용... 적절한 프로그램 운용 절실

이달 1일부터 배합사료에 들어가던 항생제가 모두 빠졌다. 1차 질병방패막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농가들로서는 질병발생이 걱정될 만하다.

하지만, 아직은 잠잠한 편이다. 별탈없이 흘러가는 모양새다.

정현규 한국축산컨설팅협회 회장은 “특별히 질병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농가들은 2~3년 전부터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는 등 미리 대비를 해왔다. 그리고, 면역증강제를 통해 나름대로 질병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대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 역시 “필드로부터 별다른 질병발생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염려한만큼 질병발생이 확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간간히 자돈구간에서 PED, TGE 등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질병이 들끓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가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과거 일부 배합사료용 항생제가 빠졌을 때 경험했던, 자돈설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성대 회장은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있다.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농가들은 가축을 세심히 살피고, 차단방역에 힘쓰는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에서는 농가단위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다. “돈가가 높다. 한마리 돼지라도 살리는 게 돈버는 길”이라며, 항생제 사용을 종용하는 영업사원 목소리에 흔들리는 농가들이 감지된다.

정 회장은 “빨리 크게 하려고, 항생제를 마구 써대서는 안된다. 수의사 처방제가 없다보니, 농가 스스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특히 비육후기 적절한 프로그램 운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11년 6월 10일



국경검역 강화 차원 축산관계자 DB 구축 근거 마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따라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축산관계자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관계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요청은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확인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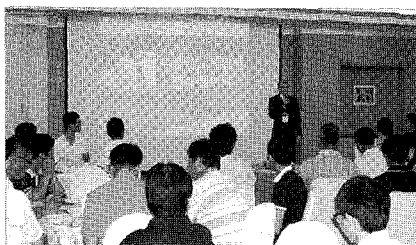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FMD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려면, 정보제공 요청을 통한 DB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정보요청과 관리 시 대상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FMD·AI 등 가축질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산관계자 협조가 절실한 만큼, 검역 및 방역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시 신고대상자에 가축분뇨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등이 추가됐다.

박정원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11년 6월 10일



“양돈농가 재입식, 예방 중점 효과적 질병관리가 관건”

✦ 베링거, 이천서 농가 대상 세미나… 전문가 이구동성



FMD 때문에 돼지를 살처분 당한 농가로서는 재입식을 앞두고, 시기, 종돈, 사육규모, 자금조달, 민원, 제도 등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많다.

베링거인켈하임동물약품은 지난 20일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재입식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재입식 전략’ 세미나(사진)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류영수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 함영화 (주)함컨설팅 대표, 한정희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 신창섭 베링거인켈하임 상무 등이 강사로 나서, 재입식시 농가들이 검토하고 고



려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류영수 교수는 “모든 선정이 재입식 성공의 관건이 된다. 특히 초산돈이 번식장애가 없어야 한다”며 “입식전 PRRS, FMD 등 바이러스 질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식 전후 제때에 맞추어 각종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아울러 모돈과 정액은 단일 농장 또는 AI센터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화 대표는 “종돈확보 방안, 민원, 돈가전망 등을 세밀하게 살핀 후 재입식을 결정해야 한다. 재입식기로 했다면, 적정 사육두수, 후보돈 입식, 생산계획 등 농장 재구축 시나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공조건으로는 농장규모의 90% 수준 입식, 출하체중 증가 모색, 신규농장과 같은 위생관리 등을 제시했다.

한정희 교수는 “FMD 이후 질병발생 양상이 바뀔 수 있다. 재입식 과정에서 흥막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질병이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 환기, 습도, 온도, 가스제거 등 사양관리와 함께 백신, 소독, 차단방역, 치료 등 질병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창섭 상무는 “이달부터 사료용 항생제가 모두 빠졌다. 이로 인해 그간 잠잠했던 질병이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가들은 특히 적절한 백신사용을 통해 질병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11년 7월 25일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검역 강화

＋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 여행 시 신고 의무화



▶ 농식품부 오정규 제2차관(가운데)과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들이 국경검역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국내로 입국 시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공·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국가 정보를 홈페이지(www.qia.go.kr)에 공개하고, 해당 국가를 여행한 축산 관계자와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 여행자는 입국할 때 검역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는 해당 국가에 출국할 때에도 출국사실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검사본부는 축산관계자 등에 대한 국경검역 조치 내용을 우편으로 직접 알리고 협회·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는 한편 축산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1588-9060)를 비롯해 공·항만 현장에서도 출국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 등 의무사항이 축산관계자 등에게 부과됨으로써 검사·소독 등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사안에 따라 벌칙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오정규 제2차관을 비롯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센터 개소식 및 국경검역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11년 7월 29일

구제역 백신 우선 생산업체 선정

✦ 5개 업체 자격 심사통과... 시제품 평가 거쳐야

국내 5대 동물용백신 생산업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심사에 합격함으로써 구제역 백신 우선생산업체로 모두 선정됐다.

지난 15일 5차 회의를 갖고 최종 업체를 선정한 구제역 백신 생산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생물학적제제(백신) 제조·판매 등 허가를 갖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구제역 백신 국내 생산 업체모집 공고'에 응모한 (주)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주), (주)대성미생물연구소, (주)중앙백신연구소, (주)코미팜 등 국내 5대 동물용백신 업체는 백신제조능력 등에 대한 서면평가 및 실사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최종생산업체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향후 시제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업체는 외국 기술이전사로부터 구제역 항원 및 부형제 수입과 백신 제조기술을 이전 받아

시제품을 생산한 후 다시 기술이전사로부터 시제품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생산업체로 선정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구제역 백신 생산 T/F팀 관계자는 “현재 기술이전사가 한국형 O타입을 포함한 3가 백신을 개발 중이고 이 후에도 시제품 평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제역 백신의 본제품의 생산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11년 7월 22일



가축방역사업 추진, 질병검색률 향상

가축위생방역본부의 적극적인 가축방역사업 결과 질병검색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위생방역본부는 최근 전화예찰·농장방역실태점검사업 등 능동적인 가축방역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질병 조기 검색 및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방역본부는 구제역 등 주YG축전염병의 조기 검색을 위해 올해 상반기 7만7000여호, 62만6000여마리의 시료를 채취했다. 농장방역실태점검은 12만6000여호를 실시해 질병으로 의심되는 925건의 ‘가축질병예찰실시결과보고서’와 함께 검사를 의뢰한 결과 382건이 질병 감염축으로 확인, 질병검색률이 41.2%로 나타났으며 검색된 질병 중 133건이 구제역 등 법정가축전염병 감염축으로 밝혀졌다. 양성으로 판정된 법정가축전염병은 1종인 구제역 등이 9건, 브루셀라 등 2종이 89건, 닭전염성F낭병 등 3종이 35건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화예찰사업은 4개월간 총 207만여호의 예찰을 통해 4500여건의 의심축 임상증상을 발견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지역 담당방역사가 전화예찰 및 농장을 방문하고 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법정전염병 110건과 기타 243건 등 총353건이 질병으로 검색됐다. 이밖에도 구제역·고병원성 AI 등의 조기 청정화를 위해 10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방역본부는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도축검사사업, 효과적 방역대 설치 지원을 위한 가축사육농가 정보 및 위치정보 등록 시스템인 팜스 등의 관리를 통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 / 2011년 7월 25일